

전북대 “스승의 날, 감사와 사랑 나눠요”

학생 홍보대사들, 1천여 송이 장미꽃 나눠

스승의 날을 맞은 15일 이른 아침, 전북대학교 구성원들의 출근길은 어느 때보다 웃음꽃이 가득했다.

전북대 학생 홍보대사들이 정문 등에서 출근하는 구성원들에게 1천여 송이의 장미꽃을 선물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이어 학생들은 이남호 총장을 찾아 ‘스승의 은혜’ 노래를 함께 부르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분주히 아침 회의를 준비하던 이 총장도 학생들의 깜짝 등장에 환한 웃음과 덕담으로 화답했다.

특히 이날 전달된 장미꽃은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뜻도 담겨 있어 나눔의 의미까지 더했다.

이영재 제18기 학생홍보대사 대표는 “스승의 날을 맞아 대학의 모든 스승들과 감사의 의미를 나누기 위해 아침 일찍 행사를 진행했다”며 “모든 이들이 즐거운 웃음과 함께 하루를 보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남호 총장은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들이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마련해 줘 매우 기쁘다”며 “우리 학생들이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15일 이른 아침, 전북대 학생 홍보대사들이 정문 등에서 출근하는 구성원들에게 1천여 송이의 장미꽃을 선물했다.

장수서, ‘부처님 오신 날’ 특별방범활동

장수경찰서(서장 정재봉)는 부처님 오신날(5.22.)을 맞아 장수군 주요 사할 내 시설물 안전 및 범죄예방 홍보 등을 위해 사할·암자(24개소)에 대한 특별방범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수경찰은 1단계(14~15일) 기간에는 전통사할 내 범죄 취약장소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한다. 관내 모든 사할·암자(24개소)를 방문하여 불전함, 방범용 CCTV, 방범창에 대한 이상유무를 파악해 보안을 권고하고, 사할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2단계(19~22일) 기간에는 112순찰차별 담당사찰을 지정해 사할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행사를 방해하는 소란행위와 사할기물 손괴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긴급 신고로 분류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2일 부처님 오신 날 당일에는 사할주변 112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범죄분위기를 제압하고, 교통체증에 대비하여 주요 교통혼잡 예상지점에 대한 교통근무를 집중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서, 이륜차 이용 배달 업소 안전모착용 홍보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 생활안전교통과장 경정 이철수는 관내 이륜차이용 배달업소를 방문하여 직접 안전모를 착용 방법 등에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는 8월 31일 까지 약 4개월간 이륜차의 위험행위 및 유관기관 등 합동 캠페인, 방문교육으로 실시하며 이륜차 사고 예방 감소 참여 유도의 홍보를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해화학고 배구선수 3명, 2019 아부다비 스페셜올림픽 지적장애인 배구 국가대표 뽑혀

전북해화학고 배구선수 3명이 2019년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스페셜 올림픽 지적 장애인 배구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지난 2014년 창단한 전북해화학고 배구부는 6인제 배구에서 단 7명의 선수로 시작해 4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선수들은 에이스 선수가 졸업할 때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 2014년 제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배구 금메달을 시작으로 제1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동메달, 제1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금메달, 제12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B조 금메달 등 각종 전국대회에서 창단 이후 지속적으로 정상의 자리를 유지해 왔다.

스페셜 올림픽 배구팀 국가대표 선발기준은 까다롭다. 선수 혼자 잘 한다고 해서 국가대표로 뽑히지 않는다. 국가대표는 최근 2년 동안의 성적을 기반으로 대표선수 선발비율이 결정된다. 전북 30%, 대전 25%, 전남 25%, 제주 20%로 단 4개의 시도에서만 대표선수가 발탁되었다. /기동취재반



고창서 청문실, ‘범죄피해자보호’ 순회 공유 토크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최근 경찰의 임무 및 직무 범위에 대해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하는 경찰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토론회의 시간을 가졌다.

피해자보호를 위해서 각 지·파출소는 물론 여청, 수사부서 등 대민 접점 부서에 신설된 경찰법 및 경직법 등에 대해 다시한번 강조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담, 신변안전조치를 위한 임시숙소 제공 등 각종 지원이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다.

가정폭력 담당 김현주 경위는 “신변보호, 임시숙소 제공 등 메뉴얼을 숙지하여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안정을 찾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성재 서장은 “피해자 보호 임무 부분이 명문화 된 만큼 각 기능별로 피해자 보호관련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총력

김제경찰서(서장 박훈기) 신풍지구대는 ‘농번기철, 경운기 등 농기계 운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에 대비 사전 교통안전 활동’에 일환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김제시 관내에는 농림지역이 4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민들의 활동이 활발함에 따라 농기계 교통사고가 빈번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경운기·트랙터 등 야간 교통사고에 취약한 농기계에 야간반사지 부착과 함께 농민들에게 최근 교통사고 사례를 설명하는 등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명근 신풍지구대장은 “농기계 교통사고는 생명과 직결되고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기계를 운행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예방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만경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저소득 독거어르신 집수리 봉사 활동

김제시 만경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서재선)에서는 15일 만경읍에 거주하는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선정하여 집·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도배·장판 교체를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해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낙후된 환경에서 생활해야하는 독거어르신 등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으로 집수리 및 낙후된 환경을 정비하고 골광이 등 오래된 내부 환경을 정리·정비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소득 가정의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